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다 맡겨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첫째는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 즉 내 몸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할 것. 둘째, 그 요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 전부 조절할 것. 셋째, 우리가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모두가 내가 돼서, 즉 가고 옴이 없이 나툼으로써 바로 내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이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도 조절할 수가 있죠.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 마음공부 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보고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꿰뚫어 본다 해도 부처님께선 그걸 도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집어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도지, 어찌 보기만 하는데 도라고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남의 속을 빤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건덕지도 못 되느니라. 즉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을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또 관습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린 통틀어 내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죠, 첫째. 그것이 역시 내가 아님이 없는,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서도 아시겠죠. 발이 밋밋하고 평등해서 평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벌레의 발 하나라도 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겠죠.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 써먹을 것인가?' 또는 '그 마음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아이구,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나 나으면 고만이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마는 원자에서 그렇게 입자가 많아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더라도 잘 생각해 두십시오.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지만 그건 설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안다면 아는 것이 약이지 어찌 모르는 것이 약이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약이겠죠. 알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팔자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는 없습니다. 붙을 자리도 없고 운명도 팔자도 붙을 자리 없습니다. 이거 엉터리로 주워 모아서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값비싼 건 줄 몰랐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십시오. 마음공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리가 터져서 우주간 법계와 더불어 개미 한 마리도 따로 없이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보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별성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참, 나라마다 조절할 수 있고 "몇이냐? 몇 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별성이나 혹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혹성만 하더라도 지금 아홉 개니 열 개니 이렇게 따로 태양을 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살고 움죽거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6·25 때 나이 젊었을 때 얘깁니다. 6·25 때 접시비행기를 봤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 야단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내려다보이는,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데까지 앉은 걸 봤습니다. 여자로 보이는데 여자 하나를 듬뿍 안더니만 그리로 태우고 선, 그 양쪽에 모두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습디다. 얼마 크지도 않은 것이 밑으로다가 철컥 뭐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리로 머리만 이렇게 수그리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똑똑히 저 아래 틈에서 봤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아휴! 지금 싸움이 벌어졌으니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영 몰랐습니다. 그러곤 그냥 가깝게 얕이 떠서 그냥, 반딱반딱하면서 자유자재하는데 '야! 저런 비행기가 있으니 우리가 질 수밖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고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생명이 없고 차서 생명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하시지마는 우리 불종(佛種)을, 참 '선의 불종' 이 자체는 이 '악의 불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함이요, 또는 '악의 불종'을 없앰으로써 우리 각 금성이나 저, 토성 같은 데도 생명의 존재가 살 수 있게, 움죽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크고 좁히면 작고,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무줄 같은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계발해서, 정신계로 발전을 해서 계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악의 종'에 '선의 종'이 딱 거기에 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스스로서 착해지고 그 모습을 아주 밝게, 자력과 광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믿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믿어지게끔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증명되려면 한 백 년 거리는 두어야죠.

그러나 그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악종, 잠들어 있는 악종을 우리가 바로 선종으로 깨닫게 해 줘야만이 그것을, 말하자면 모든 언 조건이나 뜨거운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증명도 안 되거니와 그러나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자동적인, 끝 간 데 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회합을 하고 모두의 마음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룩해야 한다는 문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첫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쁘게 될 일이 없죠.

그때에 접시비행기를 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후에 생각을 하니까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비행기를 움죽거리는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우리들이 범접을 못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해지고 능력이 손상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혼을 뺏기는 수도 많고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집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혼을 악으로 뺏길 수도 있죠. 선은 뺏어 가고 뺏어 오고 하는 것 없이 여러분에게 성능을 더 넣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악으로써 넣어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을 뺏기 때문입니다. 악으로써 존재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태양이 끼고 돌 수 있는 그 별성들은, 그 생명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한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해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해롭고,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든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서산 대사는 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겠습니까? 괜히 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공부시키느라고 학인들을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계란도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 계란을 쌓고, 보이는 데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에 지금 우주를 한꺼번에 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도 아니 되죠. 우주복을 입고 지금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많은 과학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다녔지마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하고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쪽에만 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도 만약에 저 북극이나 남극에 침투했다고 봅시다. 사람이 살아 있다고, 산다고,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구 안에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극을 따라서 해안을 쫓아서 섬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물 밑에,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데 있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를 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음이 언다.' 하는 것도 더운 김과 찬 김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 도전이다, 그리고 작업이다 이런다면 그 얼음 하나도, 파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차차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하신다면 과학자들이 해결 못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서 해결하게, 아마 그 마음이 응해 주실 겁니다. 가고 옴이 없이 말입니다. 하는 사이 없이 하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자유자재권을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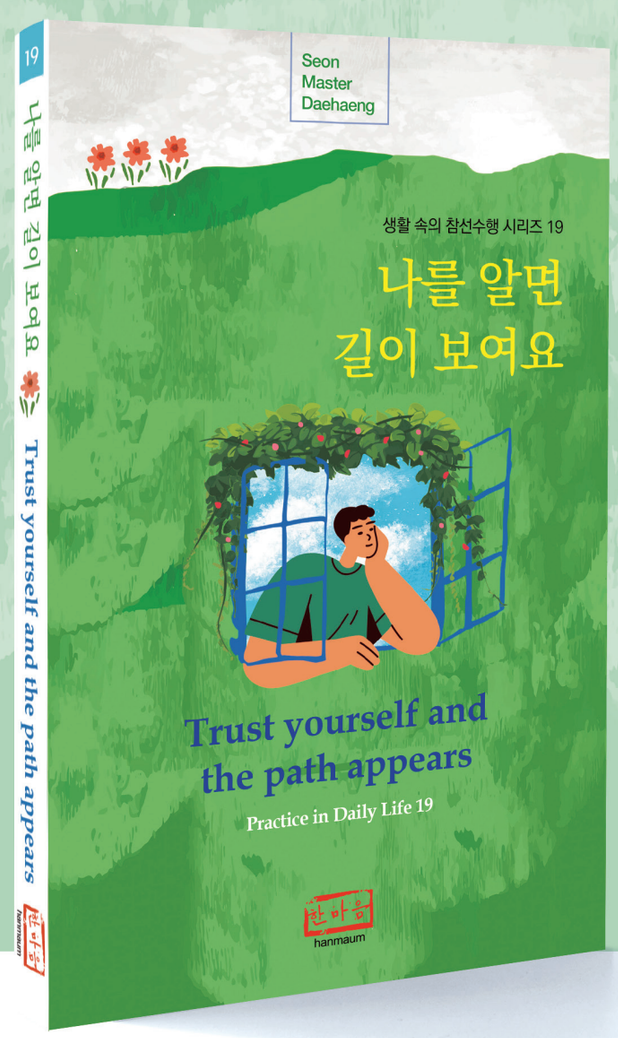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통틀어 내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8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